

# 목포 남항 '친환경 선박 집적단지' 박차

### 2025년까지 연구개발 시설 구축 정부 친환경연료연구센터 이전 재생에너지 여객선 개발 등 속도



오는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 목포시 남항 친환경 선박 연구 기반시설 조감도(안). <목포시 제공>

목포 남항이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산업 집적단지'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에 선정되며 남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남항 교육연구지구에는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시설 5개 동이 구축된다.

충전 시험동, 관제유지보수동 2개 동은 준공했고, 2단계 3개 동(연구동·전력 시험동·국제협력복지동)은 최근 착공해 오는 2025년 본 모습을 갖추게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2600여급 '해상테스트베드(K-GTB)'는 지난 9월 목포 소재 기업에서 용골거치식을 열고 건조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안됐다.

앞으로 해상 실증 기법과 절차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중소형 여객선(요트)도 개발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에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접목해 친환경 선박의 고질적 문제였던 연료소모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규모(30MW급)의 전기추진 시스템 육상시험설비인 LBTS도 오는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크루즈, 구축함급 함정까지 다양한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국산화와 세계시장 진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목포시 측은 내다봤다.

목포시는 국내 연안 선박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전남 서남권의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집체한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할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산업 집적 단지의 지속적인 확장과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예상안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00% 감축(탄소중립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화와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를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친환경 선박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친환경 선박 산업이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신안군 섬 실정 맞춤형 골목상권 조성

### 상점가 지정 지원 조례 제정

신안군이 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신안군은 최근 부지 2000㎡ 이내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었다.

신안군은 섬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에 맞춘 골목상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취지다.

각 상점가가 상인회를 만들고, 상인회가 신안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내면 신안군이 검토한 뒤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들은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라며 "특히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는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희수(오른쪽에서 세번째) 진도군수와 관계자들이 전남도 식품·공중 위생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전남도 위생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 식중독 예방·식품 관리 높은 점수

진도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식품·공중 위생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도군은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공중위생관리 20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해 요소 차단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표창을 받았다.

진도군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컨설팅)등을 실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깨끗하고 맛있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진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올해 8개 사업 교육 마무리 교육생·참가자 성과 공유회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연 '도시재생 성과 공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해 8개 사업 분야 교육을 마무리하고 최근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성과 공유회는 올해 추진한 8개 사업 분야 교육생과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센터는 올해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창업지원 세포마켓 교육 등을 추진했다.

주민 주도형 꽃채운 국화 전시회도 열어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소개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센터는 내년에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사업을 지역 상인, 창업 예정

자, 교육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이 남아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강용래 목포차인회 상임고문 다도분야 '대한명인' 추대

강용래<사진> 목포차인회 상임고문이 다도(茶道) 분야에서 '대한명인'으로 인정받았다.

강 고문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차 대한민국 대한명인 문화의 날'에서 대한명인으로 추대됐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는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란 비전으로 지난 2004년 출범했으며,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인정해 추대하고 있다.

강 고문은 한국의 전통 다도문화에 매료돼 1995년 전남 목포지역에 차(茶)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목포차인회'를 결성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회장직을 맡아서 청소년 다도 문화행사 불모지이던 호남 지역에 '전국 청소년 인성다례 경연대회'를 개최해 다도 예절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이 기간 중에 대구-경북지역의 다도를 사랑하는 문인들과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전통 다도 문화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목포차인회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후학 양성에 나서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항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